광주문화신협 장학재단, 나눔 선순환으로 지역 미래 연다

2012년 이후 장학생 208명 누적 장학금 21억원
국내 주요 대학 합격 잇따라…인재 육성 마중물
멘토링·김장봉사·정기기부 등 공동체 기여 성과

지난 22일 광주문화신협 첨단본점에서는 장학생 멘토 13명과 조합원 자녀 멘티 30명이 참여한 제10회 '청춘공감' 멘토링이 열렸다.

지역 인재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광주문화신협의 장학사업이 또 다른 인재를 육성하는 선순환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23일 광주문화신협 복지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문화신협 첨단본점에서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진학과 진로 상담 멘토링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국내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장학생 멘토 13명과 조합원 자녀 멘티 30명이 1:1 대면 상담 형식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조언과 경험을 나눴다.

장학생들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0번의 멘토링 활동으로 258명의 조합원 자녀들에게 자신의 진학 경험을 토대로 진로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광주문화신협은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지난 2012년 복지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우수한 인재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학업을 통한 성장을 돕는 데 주력해왔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고교 2학년부터 연간 100만원, 대학 입학 후부터 졸업까지 연간 300만원씩을 지원 받는다. 6년 간 학생 1명이 받는 장학금은 1천400만원 이상이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 10명은 월 30만원의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장학재단은 현재까지 208명의 장학생에게 총 20억8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목할만한 점은 재단의 지원을 받은 장학생들이 수혜자에서 기부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장학금 덕분에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던 학생들은 멘토로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사회 진출 후 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김장 및 연탄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복지장학재단은 지난해(13기)부터 장학생 인원을 전년보다 두 배 늘렸다. 공동유대 지역(조합원 가입 기준)이 기존 북구에서 광산구까지로 변경되면서 장학생 선발 기준 범위도 함께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24개 학교에서 26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장학재단은 예상했다.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생을 선발하고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이뤄 나누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고 이사장은 이어 "취업 후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희망적이며 이는 우리 재단이 최고의 장학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진정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20년, 30년 꾸준히 운영한다면 신협과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 인재들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솔 기자

100% 곡성쌀 '시향가 쌀막걸리' 출시

농협 곡성군지부, 내달부터 온라인 구매 가능

농협 곡성군지부와 농업회사법인 시향가는 23일 "전날 기차마을 전통시장에 위치한 시향가 판매장에서 올해 새롭게 출시한 시향가 쌀막걸리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우희정 곡성군 농정과장, 김완술 곡성농협 조합장, 김형조 곡성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쌀막걸리 제조과정 설명을 듣고 막걸리 시음 품평의 시간을 가졌다.

시향가 쌀막걸리는 곡성군 삼기면 지역에서 재배된 100% 곡성쌀(유기농 찰벼 30%, 일반벼 70%)로 빚었으며 첨가제와 감미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발효한 막걸리다.

시향가 쌀막걸리는 이달 21일부터 곡성축협 하나로마트와 관내 식당에 공급을 시작했으며, 2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방현용 농협 곡성군지부장은 "곡성쌀로 빚은 막걸리를 널리 홍보해 지역 쌀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경제일자리재단, 국내 5대 플랫폼사 광주소상공인 기획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23일 "국내 대형 5개 플랫폼사 광주소상공인 기획전에서 설 명절 소비촉진을 위한 판촉행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제일자리재단은 광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모집공고를 통해 개발한 밀키트 등의 상품에 대해 쿠팡, 11번가 등 대형 e-커머스플랫폼사와 상생협약을 맺고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광주푸드클럽기획전'을 검색하거나 플랫폼사 홈페이지에서 '안유성명장' 또는 '광주푸드클럽'을 검색하면 된다.

플랫폼마다 제공되는 쿠폰을 활용하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정은솔 기자

1인당 쌀소비 또 최소치 경신…30년 전 절반 수준

●통계청 2024년 양곡 소비량 조사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평균 55.8㎏
소비변화 주정 전년比 16%↑·면류 32%↓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전년보다 감소, 3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5.8㎏으로 1년 전보다 0.6㎏(-1.1%) 감소했다.

2015년 172.4㎏, 2016년 169.6㎏, 2017년 169.3㎏, 2018년 167.3㎏으로 매년 계속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평균(55.8㎏)은 약 30년 전인 1994년(120.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3년 이래 역대 최소치를 재차 경신했다.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 양곡) 소비량 역시 64.4㎏으로 전년 대비 0.2㎏(-0.3%) 줄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농가의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95.4㎏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했으며 비농가 소비량은 62.9㎏으로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비량은 농가 83.3㎏으로 전년보다 2.3%, 비농가 54.5㎏으로 0.9% 각각 감소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농가 사람들이 비농가사람들보다 28.8㎏ 더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먹는 소비에서 마시는 소비로 문화의 변화 차이도 보였다.

식료품·음료 제조업 부문 쌀 소비량은 87만3천363톤(t)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음료(탁주·약주·주정) 제조업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2년 17만5천528t으로 전체 비율 중 23.4%를 차지하던 것이 2023년 25만9천57t 31.7%, 2024년 28만8천751t 33.1%를 기록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주정 제조업이 2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떡류 제조업(22.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8.6%),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10.0%) 순이었다.

특히 에틸알코올을 비롯한 주정 제조업의 쌀 소비량이 2023년 19만7천102t에서 지난해 22만8천595t으로 16.0% 증가했다.

반면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1만1천917t으로 전년대비 32.1%(5천635t) 줄어들었다.

이어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9.8%, 장류 제조업 19.7%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태호 기자

KT 사랑의 봉사단, 시각장애인 설명절 상차림 지원

'쌍교숯불갈비'도 후원 동참

KT 전남전북광역본부 사랑의 봉사단은 23일 "설을 맞아 광주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설날차례상 차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KT 전남전북광역본부 사랑의 봉사단은 광역본부 임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날 행사에 평소 차례상 차리기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이 차례상을 차리는 방법과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차례상을 차리는 방법과 상차림에 담긴 의미를 배우고 직접 과일과 음식을 상에 올리며 전통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KT와 함께 외식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가는 '쌍교숯불갈비'에서 갈비세트를 후원해 사랑나눔에 동참했고 KT 사랑의 봉사단은 갈비 50세트를 준비하며 시각장애인들의 설날 상차림을 지원했다.

김진철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은 "고물가와 불경기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설 상차림에 도움이 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며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운수대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새해 덕담을 전했다. /안태호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
'KicxUp광주' 입주기업 모집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는 23일 "첨단 2단지 더센텀하이테크 지식산업센터 내 'KicxUp광주' 임대공장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icxUp은 산단공 스타트업(KICOX x StartUp)의 의미로 창업·중소기업들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투자유치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업지원 시스템이다.

현재 잔여호실은 총 45개로 첨단전략산업(AI·로봇·클라우드) 집중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공간 호실 15개(계약면적:10-30평)와 그 외 30개호실(계약면적:25-55평)을 모집 중이다. /정은솔 기자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계>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 원]	비고
[아파트]					
2023타경 2894	2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664-5 [현황:자연림]	전 228㎡	12,312,000 12,312,000	맹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5. 2. 10.[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5. 2. 17.[월] 14:00

4. 매각장소 : 목포지원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표장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5.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조미애